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파행'

'아줌마 발언' 사태 촉발…학생들 수업 거부

발언교수 사직, 대학원장·부원장 보직 사퇴

광주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 개원 1년 만에 파행 사태를 맞고 있다.

학생들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수업거부를 하고 있으며, 수업 중 '아줌마 발언'〈본보 3월23일자 7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고 대학원장과 부원장은 사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했다. 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개선안을 마련해 대학본부에 제출하기로 했고, 대학본부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다.

◇사태 촉발은 '아줌마 발언' = 문화전문대학원 파행 사태는 M교수가 지난 7일 수업 중 일부 기혼여성들을 "아줌마"로 호칭하는 등 인격모독 발언을 한 사실이 해당 학생들을 통해 지난 22일 언론에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M교수가 자신들에게 "'아줌마들은 나이 많아 반말도 할 수 없고 수강생도 20명이나 돼 수업하기도 힘들다. 수업 연장으로 술도 마시고 해야되는 데 아줌마라 그것도 안 되고… '딴 수업 받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M교수는 이들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목인 M교수의 수업을 거부해왔다. M교수는 발언 파문 등 제반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P대학원장과 K부원장도 잇따라 보직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1년간 쌓인 불만 터져 = 학생들은 이후 '대학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지난 26일부터 수업거부를 하며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원이 교육공간이나 교수진 충원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둘러 개원하는 바람에 지난 1년 동안 '문화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문화전문대학원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느 대학원과 다를 바 없는 안일한 행정 시스템으로 운영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셈이다.

학생들은 특히 전임교수가 6명에 불과한데다 교수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과목간 교차교육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 측에서 전임교수를 10~12명으로 확충키로 하고 지난해 2명의 교수를 특채로 임용하려 했으나 교수들간 의견차로 무산되는 등 교수들의 불협화음으로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보직 교수 사표 수리 = 전남대는 28일 대학원장과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W교무처장과 L교무부처장을 임시로 대학원장과 부원장에 임명했다. M교수의 사표는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전남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잘 잘못을 가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일련의 문제들은 문화전문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행착오라고 판단한다"며 "조속히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아 건실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문화수도' 대비 전문인력 양성 기관

전문 문화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했다. 전공은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문화관광·미디어예술공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2년 과정에 정원은 30명이며 전임교수는 6명. 학비가 학기당 400여만원으로 전남대 내 다른 일반대학원(220만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하지만 광주 문화수도 조성과 맞물려 지난해 3월 1기생 모집 시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 2기 모집 경쟁률은 1.7대 1이었다.

"친환경 쌀밥 맛있어요" 광주 어등초등학교(교장 정필연) 어린이들이 무농약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간 정부미를 급식재료로 써온 어등초등학교는 28일부터 농협 나주연합사업단으로부터 친환경 쌀을 공급받게 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산단 카본 제조업체

수 십억 외화도피 조사

관세법위반 혐의도

여수산단 내 화학업체가 해외로 외화를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세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세관은 28일 "여수산단 내 고무산업용 카본블랙 제조업체인 C업체의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C업체는 지난 1999년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회사인 또 다른 C회사를 설립한 뒤,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외화를 도피시킨 혐의다.

이 업체는 또 자신들의 해외거래처에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 등의 지급을 통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했으며, 원자재 및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부풀리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C업체의 최근 7년간 영업장부 및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을 마쳤으며,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C회사=미국 조지아주 매리에타에 본사를 둔 콜롬비안 케미칼 콤퍼니(columbian chemical company)의 한국 공장으로 종업원은 89명. 콜럼비안 케미칼은 전 세계 9개국 13개공장에서 연산 110만t 규모의 카본블랙(타이어 등 고무제품 보강재)을 생산하는 세계 3위의 카본블랙업체로, 지난해 3월 D화학이 지분 67%를 인수했다.

세관 측은 이 업체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수 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께 C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조사 초기 단계여서 외국으로 도피시킨 외화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수=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헌병 욕한다' 울컥 살인

60대, 만취상태서 비난한 후배 살해

지난 72년 헌병대 병장으로 제대한 전(前) 건축업자 김모(64·목포시 산정동)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의 엄한 군기(軍紀)와 전통에 대해 평소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다. 이 때문에 며칠 전 후배 이모(60)씨가 "일제시대 때 헌병대는 밀대(밀고자)였다"며 자신을 험담한 데 대해 몹시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김씨가 이씨를 다시 만난 것은 지난 27일 밤 11시께. 목포시 산정동 T슈퍼 2층에서 선후배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헌병대는 밀대"라고 비아냥대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만취 상태인 김씨는 "잠깐 보자"며 이씨를 내실로 데리고 간 뒤 방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헌병대 출신임을 자랑으로 삼아온 김씨는 그 헌병대의 굴레 때문에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부부싸움이 부른 참변

40대, 아내 찌른 뒤 음독

28일 새벽 5시께 영암군 삼호읍 H중공업 사원아파트에서 임모(41)씨가 아내 김모(37)씨를 흉기로 찌른 후 음독 자살했다.

부인 김씨는 이웃 주민이 119구급대에 신고,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회사 생산직 직원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디스크 증상으로 임시 휴직하고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4월부터 출근할 사람이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싸움을 자주 했다"는 주위사람들의 진술로 미루어 부부싸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나원참 〈7089〉 김종두

'벽돌치기' 車 50여대 털어

순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광주·전남지역을 돌며 고급 승용차 50여대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차량 내에 있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양모씨(44)를 검거, 조사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면허 음주 뺑소니車 펑크나 '덜미'

쌍나팔

○…음주 상태에서 4중 추돌을 내고 뺑소니를 친 무면허 운전자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2)씨는 28일 새벽 0시20분께 혈중 알코올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북구 두암동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800여m를 달아났다는 것.

○…이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나 단속에 적발됐었다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